

주기도문 강해 서론

오늘부터 저는 ‘현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 복음 6 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 :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 :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 :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현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이런 주제로 강해를 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확실치가 않아요, 아직도 흔들흔들 하거든요, 내세의 확신은 먼 훗날일이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비실제적인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 말씀은 노인들에게서나 가셔야요”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생각을 접어놓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Kingdom 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Kingdom은 헬라어 Basileia(βασιλεία)를 번역한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¹.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Thy Kingdom come)” 한 말의 나라는 kingdom으로 basileia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².

¹ . , entirely exclude the notion of the kingdom as the sphere in which God bestows his blessings..._04 Thy Kingdom\2kindom from Donald G.docx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 13:14 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했을 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13 :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구절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에서 왕의 나라가 malkooth, basileia 입니다. 통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는 왕의 통치가 길지 못하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지역으로 해석하면 “왕의 지역이 길지 못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Thy Kingdom come)” 한 말의 나라는 kingdom 으로 malkooth 이며 basileia 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이 임하하옵시며 ”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 :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²⁸ Verily I say unto you, There be some standing here, which shall not taste of death, til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이 구절에서 왕권은 kingdom 으로 basileia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Kingdom 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은 다스릴 지역을 가지고 오신 다는 말이 아니라, 통치권, 즉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Kingdom 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 삶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지극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². It is now generally agreed that it means not so much a domain(지역), as a reign(통치); not so much an area over which the king reigns, as the activity of reigning.(Guthrey NT Theology the Kingdom, synoptic Gospel)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온 삶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주기도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마태복음 6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 :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원합니다.

둘째 부분은,

마태복음 6 :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 :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들의 필요를 기원합니다.

세번째 부분은 송영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완전한 굴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굴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은 창세기 때부터 내려 오는 주제입니다.

창세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라는 말은 with 라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이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로서 전치사 with 가 구약에서 104 번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14 번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21 : 22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았지만 그 나라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또 다른 구절을 창세기에서 부십시오.

창세기 31 :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나그네처럼 객지에서 떠돌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의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 :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 : 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 : 3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 91 : 4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시편 91 : 5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시편 91 : 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91 : 7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91 : 8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시편 91 : 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시편 91 :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 : 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이라
시편 91 : 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 :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 : 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 : 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 : 16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오는 유익한 점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피난처와 반석이 되시므로 모든 적으로 부터, 질병으로 부터 보호하시고, 장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 하실 때 우리는 만세 반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우리는 만세 반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서 피할 방위와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장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주께 있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지극한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살 때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 :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 분의 안에(entos=inside)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통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시작이며, 원리이며.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하실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은 주님의 시대관에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16 : 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마태복음 16 :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며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Fulfillment)와 완성(Consummation), 그
사이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나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메시아의 나라의 성취, 그 사이에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5:5-9 을 읽읍시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 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35 :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 :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 :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사야 35 : 8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35 : 9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지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주는 구절은 어느 것입니까?
이사야 35 장 5 절과 6 절의 전반부인

이사야 35 :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 :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완성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셨습니다. 마태 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1 :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마태복음 11 :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마태복음 11 : 5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메시아인가 아닌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마태복음 11 : 5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이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은 이사야가
한 예언인 이사야 35:5-6 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 :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 :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의 예언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완성(Fulfillment)은 되었지만 성취(Consummation)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Fulfillment)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Consummation)될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이 예언중에서 아직 완성 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5 : 6---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 :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사야 35 : 8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35 : 9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 영원한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 우리는 변화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에서 영원히 살게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부분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완성한 그 때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나라를 성취 하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와,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강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면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자기가 의식하고 있던지 못하던지 완성된 현재의 삶속에서, 성취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3 :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 :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 :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구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 것은, 내세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길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 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예를 들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전날 밤에 나의 기쁨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꺾기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환경을 초월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본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듣지, 또는 간헐적으로 듣지 경험하면서 삽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나 하면 현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천년 왕국후에 사탄이 완전히 쫓겨 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것입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 :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천년왕국후에 사탄이 완전히 다시 불과 유황 못에 전져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은, 신천신지에서 사탄이 불과 유황 못으로 쫓겨 날 일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귀신이 쫓겨 나가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겨자씨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이라고 한 것등 너무나 많아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던지 못하던지 현재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삶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Sunday 에 남들처럼 여기 저기 놀러 다니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왜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고는 교사다, 집사다, 당회원이다, 하면서 늦도록 봉사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려고 있는지를!

구원받은 기쁨에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입니다. 행복된 삶을 살기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지극히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가장 행복된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을 살아라!

이것보다 현실적인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위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것보다 현실적이고 분명한 신앙 생활의 목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믿음에 활력을 주는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주안점을 둘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 아메리카 행 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배 안에서 먹을 건빵이랑 여러가지 마른 음식종류를 샀습니다.

이윽고 그는 출항일자가 되어 배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비록 맛이 없는 것이었지만 사가지고 간 마른 음식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것을 도착하는 시간까지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지, 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맛있는 고기를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건빵만 먹던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나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할려면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위로를 했지만 나중에는 햄버거에 있는 고기라도 한번 먹어 봤으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다 끝나 갈 때쯤 이 사람은 고기를 사먹으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웨이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맛있는 steak 를 먹을려면 얼마를 pay 해야 하느냐?”

웨이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 낸 배 삿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 낸 배 삿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배 안에서 먹는 음식 값은 배값에 포함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것을 모르고 건빵만 먹고 지낸 것입니다.

이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행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으로 가련해 보이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는 건빵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번만 허락된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인격을 통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행동을, 말을, 사업을 다스리게 될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